



보경사 숲.



청호반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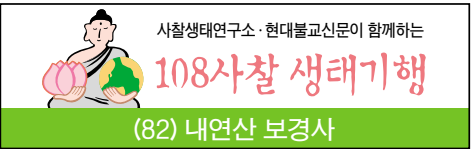
보경염낭거미.



회화나무 수피.



한피왕가지나방.



튼실한 자연 뛰어난 풍광 “금강산에도 없다”

한국화의 원형은 조선 후기 겸재(謙齋) 정선(鄭敾)의 진경산수(眞景山水)라고 한다. 겸재의 진경산수 가운데 ‘고사의승관란도(高士倚松觀瀾圖)’ ‘삼룡추도(三龍秋圖) 1·2’ ‘내연산폭포도(內延山瀑布圖)’ 등은 그가 경복 정하현감으로 재직할 때 내연산(內延山)을 오르내리며 그린 산수화이다.

포항 보경사(寶鏡寺)가 바로 그 내연산 산수 속에

자리한 신라고찰이다. 보경사 창건사에는 시기와 주인공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전설이 전해온다. 그러나 중국으로부터 보배로운 거울을 들여와 묻고는 절을 지어 ‘보경사’라 했다는 줄거리만은 다름이 없다. 그 후 고려시대에 와서는 원진국사(圓眞國師)가 크게 중창을 하였다.

주차장에 내리면 보경사의 사하촌인 덕곡(德谷)마

을이다. 절의 턱을 입고 사는 마을이란 뜻으로, 예전에는 모두가 보경사 소유였다. 턱짜마를 식량촌 뒤로 청하골 계곡물이 흐른다.

청하골에는 청호반새, 물총새, 노랑할미새, 물까마귀 등 물을 좋아하는 새들이 서식하고 있다. 청호반새는 여름철새로 날개와 등쪽이 푸르다. 부리는 붉고, 머리는 검은모자를 쓴 듯하고, 가슴은 흰색, 배는 황갈색이다. 물총새와 함께 화려한 색조를 자랑한다. 일주문을 들어서면 주위로 노송숲이 그윽하다. 그 숲속에 회화나무, 말재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밤나무 등 노거수들이 장로(長老)로 서 있다. 원래 이 숲의 최장은 수령 800년 된 회화나무였다. 원진국사의 보경사 중창시기에 맞추어서 ‘800년’의 나이로 대접 받은 이 최장나무는 지난 번 태풍 때 쓰러져 열반에 들고 말았다. 절집의 노거수는 살아있는 역사물이다. 노거수 목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속에 화재나 풍수에 해당 흔적이 입력되어 있다. 그래서 노거수를 ‘생명문화재’라 한다.



내연산비하대소나무.

일주문 숲을 지나면 위쪽 계곡에서 수로가 내려와 보경사 경내를 지나간다. 이 농수로(農水路)는 사하촌의 수천만 평 넓은 들을 먹여 살린다. 경내로 농수로가 지나가는 예는 보경사가 유일하다.

보경사의 가람배치는 천왕문-오층석탑-적광전-대웅전을 중심으로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한 천왕문-적광전-실법전-법종각 영역, 대웅전을 앞에 둔 팔상전-산신각-원진각-영산전-명부전-원진국사탑비 영역, 성보박물관과 승방 영역이 그것이다.

적광전은 금당탑비의 내용을 보면 1677년에 중창한 것으로 되어 있다. 기단이 외발대라서 격이 낮아 보이지만, 대웅전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 절의 금당(金堂)이었다. 금당의 격에 맞게 기단부 석재가 모두 옥석이다. 옥석은 내연산 일대에 분포되어 있다.

적광전 신방목 양쪽에 사자상이 조각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방울이 달린 목걸이, 불거진 눈, 비대한 몸체 등은 천상 해태상이다. 명부전 앞에 중창주인 원진국사비가 보호각 안에

있다. 보호각 옆에 큼직한 피나무 한 그루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고 있다. 명부전 뒤로 일각문이 있어서 동암(洞巖)으로 이어진다.

경내의 나무로는 풍무소 옆에 있는 수령 400년의 소나무를 비롯해 피나무, 감나무, 오동나무 등이 있으나, 묘사재 마당의 두 그루 늙은 팽나무가 가장 주목 받는다. 개시판 안내로는 수령이 400년이나 된다고 한다. 노쇠한 데다 풍수해까지 입어서 두 나무 모두 큰 줄기는 잘라지고 없다. 이 나무의 후손들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바깥 담장가로 가면 건장한 팽나무들이 튼실하게 자라서 생물을 조성하고 있다.

내연산 정상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이다. 일주문을 지나 청하골을 따라 오르는 계곡길과 일주문 바로 앞에서 우측으로 난 능선길이다. 능선길은 일주문 앞에서 보경사 담장을 끼고 시작된다. 자동차 한 대가 지나다 널따란 포장길 한 줄기가 산으로 올라가 있다.

보경사는 주변 자연생태가 튼실하다. 보경염낭 거미 같은 희귀종 거미도 보경사의 생태가죽이다. 세계적으로 표본이 3개체뿐이라는 보경염낭거미는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 보경사 주변에서 처음 채집하여 1979년에 ‘보경’이라 이름 붙여서 등록했다.

소나무가 우점일정 범위 안에서 가장 무성함하는 동암-능선-문수산-정상 지역은 송이가 많이 나는 곳이라 송이철이 되면 주민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킨다. 일부 능선에서는 신갈나무들이 이 소나무들을 위협하고 있다. 능선을 타고 정상으로 오르다보면 등 뒤로 멀리 동해바다가 펼쳐진다. 보경사 중창주인 원진국사 부도로 오르는 계단길도 이 길에 이어져 있다.

보경사로 돌아오면 그윽한 숲길에 절 앞을 지나 청하골 열두폭포로 이어진다. 큰절에서 서운암까지는 불과 300미터 거리. 서운암 앞 계곡에 시멘트로 만든 아름다운 다리가 놓여있다. 주위의 자연환경과 잘 어울린다. 교각도 물속의 튼튼한 암반을 딛고 있어서 태풍 때에도 끄떡없이 견딜 만큼 튼튼하다.

청하골의 절벽들은 숨 가쁘지만, 산길의 경사는 그리 가파르지 않다. 보경사와 등산로 주변에서 관찰된

800년된 회화나무 태풍으로 쓰러져 경내에 농수로 지나는 유일한 사찰 세계적 희귀종 ‘보경염낭거미’ 서식

내연산 열두폭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관음폭포에서 고개를 올라 쳐다보면 비하대(飛下臺)가 아슬아슬 솟아있다. 비하대는 정지한 이 <산중일기>에서 중허대(中虛臺)라고 불렀던 절벽으로, 남떨러지지 높은 소나무 두 그루가 비스듬히 서 있다. 겸재의 ‘고사의승관란도’에 나오는 바로 노송이다.

숲길 주변은 소나무와 활엽수가 반반(半半)하고 있다. 참나무로는 굴참나무, 졸참나무, 떡갈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다. 물푸레나무, 층층나무, 느티나무, 옻나무, 때죽나무, 쪽동백, 뽕나무, 생강나무, 개울나무, 헛개나무, 당단풍, 서어나무, 까치박달, 물박달, 고로쇠나무, 쇠물푸레, 팔배나무, 고강나무, 미역줄나무, 개뽕나무, 굴피나무 등등이 울울창창한 터널을 만들고 있다. 그 중에 망개나무에 눈이 가는 것은 속리산과 주왕산 등 몇 곳에서만 관찰되는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이다.

짜아지른 화소대 석벽엔 부처손이 곳곳에 군락을 이루며 붙어있다. 글·사진=김재철(서울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석불상 · 석탑 · 석등 · 동물상 · 인물상 · 목불조각 · 수미단 · 조형물조각 · 목불조형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 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대불교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의 소임을 다하려합니다. 제방의 대덕 큰스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현대불교조각예술원

전화 031)531-5349 / 전송 031)533-6289 / 휴대폰 010-8887-1189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 일반기와, 기와강판, 스트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묘사재, 산신각),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경기 : 011-327-7697
충청도 : 019-396-1110
경상도 : 010-8674-2357
강원도 : 010-7638-1117

현대칼라지붕공사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부대중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숲솔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7년 8월 4일 - 8월 10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옥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 7일 중 일부기간 참여 가능)
 - 시작 날 - 8월 4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8월 10일 오전 12시
- 참가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비물 : 수행에 관한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 : dhamma53@hanmail.net)